

# 청년예술가들의 인터랙티브 아트 감상해볼까

담양담빛예술창고 '청년작가 공모전-공감시대' 전  
내달 1일까지 문창환·이병찬·이청하·최순임 참여



최순임 작 '내가 지켜줄게'

담양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관장 장현우)는 인터랙티브 아트 청년작가 공모전 '공감시대'를 오는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공모전 선정작가인 문창환, 이병찬, 이청하, 최순임 등 4명의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융복합 예술을 통해 기존의 전시공간만이 아닌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체험예술의 장이다.

부제인 '공감시대'는 주·객의 분별없이 서로에게 스며들어 화선지에 채묵이 번져나가는 산수자연에 몰입되어 몰아일체를 이루는 내적 작용을 의미한다.

문창환 작가는 빛과 사진 이미지와 CG 등 다양한 표현기법들을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승 속 고단한 삶의 정신적 성숙했던 옛 사당의 개념으로부터 발상해낸 가상의 공간을 레이저 빛으로 구현을 설정해 그 불확정성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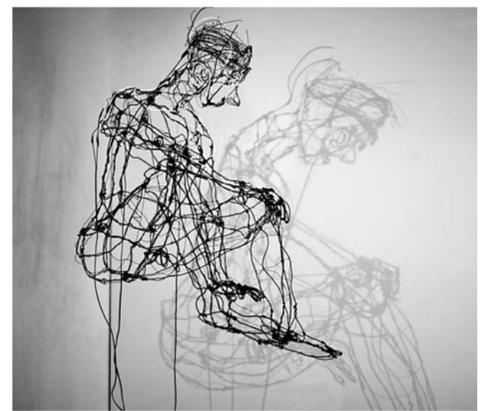
간을 드러내는 '차원적 이동'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청하는 빛을 움직여 또다른 상을 그려내는 그림자놀이 체험을 제공한다. 철사를 구부려 3차원의 공간에 드로잉을 하듯 제시한 형상에 관람객이 휴대폰 빛을 비추어 만들어지는 자기연출의 이미지를 즐기게 한다.

이병찬은 기형적인 도시생태계와 일상화된 소비편의가 빛어내는 판타지를 허공에 띄워 놓았다. '동물적 소비욕망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 시대에 일상과 생태계를 뒤덮어가는 플라스틱과 비닐이라는 간편 일회용품이나 저가의 가짜상품들에서 역설적으로 민주적인 매체를 발견한다.

최순임은 회화와 입체형상에 동화적 요소와 시적 메타포를 결합한 'merry-go-round' 연작을 보여준다.

낯설음과 익숙함 사이를 모험하는 어린이와 같은 고양이와, 되풀이되는 회전



이청하 작 '초면'

막아 오르골 사운드 입체작품, 회화와 드로잉들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관람객이 다가서면 반응해 오르골이 작동하거나 LED 빛줄기가 쏟아지기도

하는 연출을 통해 반복된 일상으로부터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관람객의 자기치유를 유도한다.

문의 061-383-8240. /이연수 기자

## 한 달 한 번, 아름다운 발레의 세계로

시립발레단 발레 갈라 '백조의 호수' 프리뷰  
15~1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매월 광주 시민들에게 고품격 발레를 제공해온 광주시립발레단 발레 갈라 콘서트가 오는 15~16일 '백조의 호수' 프리뷰를 선보인다.

15일 오후 7시30분, 16일 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두차례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오는 7월 공연을 앞두고 있는 시립발레단의 제122회 정기공연 '백

조의 호수' 하이라이트들로 구성된 프리뷰 콘서트다.

세계 발레 거장 유리 그리고로비치 안무가와 프리마발레리나 이은원, 국립발레단 간판 무용수인 이동훈 수석 무용수, 러시아 유리 그리고로비치 사단이 총 출동하는 '백조의 호수'를 이번 공연을 통해 먼저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시립발레단 발레 갈라 콘서트로 오는 15~1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백조의 호수' 프리뷰가 펼쳐진다.

전 세계 발레 팬들로부터 100년 이상 사랑받고 있는 '백조의 호수'는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로 통한다.

푸른 달빛 아래 우수와 서정적인 차이콥스키 음악을 배경으로 새하얀 '튀튀'를 입은 백조들의 군무가 어우러져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수십 명의 발레리나가 푸른 달빛이 일렁이는 신비로운 호숫가에서 시시각각 대열을 바꾸며 추는 군무도 일명 '발레 불랑' (백색 발레)이라 불리는 명장면이다.

공연이전, 최태지 감독의 해설이 함께하는 '발레 토크, Talk!'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을 통해 감상법을 소개하며 발레 작품을 즐기는 다양한 시선을 제안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22-8716. /이연수 기자

## 11일부터 '광주성악콩쿠르' 접수 시작

광주문화재단, 두차례 예선 거쳐 8월 25일 본선

"신진 성악가들을 한국 음악계를 이끌 인물로 성장시키는 것이 본 콩쿠르의 목적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2018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해외 유학생을 포함한 내국인이며, 참가신청은 오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광주성악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0만원.

참가자는 8월 11일과 18일 총 2차례의 예선을 거쳐 8월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본선을 치르게 된다.

1등 1,500만원, 2등 1,000만원, 3등 500만원을 비롯해 특별상으로 향토상 200만원, 고향상 200만원, 정율성가곡상 100만원, 우리가곡상 100만원, 반주상 1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본선 최고입상자에게는 '정율성음악축제' 공연 시 협연 기회가 주어진다. 문의 062-670-7467. /이보람 기자

## 영화로 보는 좋은 부모의 조건 11·18일 북구청소년수련관

북구청소년수련관복지센터(센터장 황수주)는 가족과 관련된 영화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감동관계를파악하고, 의사소통의 개선을 도와주기 위해 '영화를 통한 부모 자녀관계향상' 부모교육을마련했다.

효과적인 부모역할훈련 전문 강사인 정선주 부모교육센터 소장을 초청, 북구청소년수련관상상마루공연장에서 오는 11일과 18일(오전 10~12시) 영화를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와 좋은 부모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11일에는 미식 축구선수 마이클 오어의 실화를 다룬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로 평생 가족을 가져본 적 없는 청년과 그에게 가까이 엄마가 되어준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구청소년수련관 부모교육 진행 모습.

18일에는 토레보다 글을 깨우치는 속도가 느리고 책을 읽을 때도 안절부절해 친구들부터 놀림을 받는 난독증 아이와 미술 선생님의 감동스토리를 담은 인도 영화 '지상의 별처럼'이 상영된다.

특강은 광주동부교육지원청과 북구청소년수련관복지센터, 서산초, 오정초, 문흥중, 용봉중, 우산중학교가 운영한다. 신청은 북구청소년수련관복지센터(062-268-1388)로 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 경매 투자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이상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